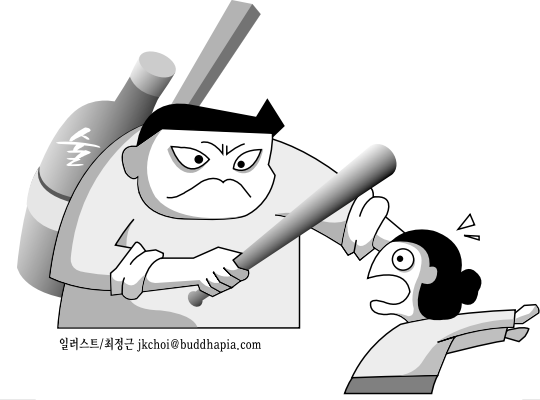


결혼 11년차인 주부 박모 씨(38)는 남편(41)에게 손저림을 당하고 지난해 12월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 부설 행복한가정상담소를 찾았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4년째 구타를 당하던 박 씨는 남편에게 각서까지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참다못한 박 씨는 상담소를 찾아 위기를 모면한 뒤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후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들과 함께 모자보호숙소에 입소할 계획이다.

최근 개그우먼 이경실 씨 사건으로 가정폭력이 다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부 간의 폭력은 제3자의 개입이 쉽지 않고 가정 파탄과 자녀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상담소	연락처	상담소	연락처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행복한가정상담소	(02)735-0406	인천여성전화	(032)529-2545
여성긴급전화 1366	일반전화-지역번호 없이 1366 휴대폰-지역번호 +1366	청주여성전화	(043)252-0968
선재가정상담소	(02)942-0149	대구여성전화	(053)657-8082,3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	부산여성전화	(051)817-6464,817-6474
http://www.iffeminist.or.kr		울산여성전화	(052)211-120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02)697-0565	광주여성전화	(062)363-0487
http://lawqa.jinbo.net		전주여성전화	(063)283-9855
이혼법률상담센터	(02)556-3100	http://www.jhotline.org	
http://www.2hon.co.kr		http://www.jhotline.org	
한국여성전화연합회	(02)2263-6464		
http://www.hotline.or.kr			
서울여성전화	(02)2263-6464		
http://hotline.jinbo.net			

가정폭력 이젠 숨지 마세요

2001년 11만4천여건 매년 50%증가
'집안일'로 치부, 관여 회피인식 만연

실태 무조건 참기보다 근본적 해결의지 필요
대처방법 혼자서 해결하려 말고 전문가와 상담

△실태
행복한 가정 상담소가 발표한 '2002년 상담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 한 해 312건의 상담을 했으며 이 중 55%에 달하는 173명이 가정폭력피해를 상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부의 집계를 보면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99년 4만 1497건에서 2000년 7만5723건, 2001년 11만4612건으로 매년 5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된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대부분이 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가정이 깨지는 데 대한 우려로 상담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숨기는 것은 구타가 지속 반복되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러한 식으로 가정폭력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상담소에서는 긴급상황에 경찰을 직접 연결해 주거나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무료 법률 상담도 해준다.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무 고추 장아찌

고추 1kg, 무 3개, 진간장 6컵, 집간장 4컵, 설탕 2컵, 식초 2컵, 소주 1/2병
1. 고추는 씻어 끝부분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는다. 진간장, 집간장을 섞고 설탕을 넣어 녹인 후 식초를 탄다.
2. 무는 겉질째 씻어 반으로 가른다. 독 밑에 무를 깔고 손질한 고추는 망에 담아 무 위에 얹고 돌로 누른다. 그 위로 간한 간장을 붓고 일주일 후에 따라내 끓인 다음 식혔다가 다시 붓는다. 이때 소주를 함께 붓는다.
(재출=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울림 발우세트

바리, 바리때라고도 불리는 발우는 '발다라'의 중국어 음차로

'양에 맞맞은 그릇'을 뜻한다. '스님은 옷 세 벌과 발우 한 벌(三衣一鉢)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행자는 한 벌의 발우를 평생 지니고 다녔다. 울림 발우세

물푸레나무 사용 고급스럽고 실용적

트는 물푸레나무에 울림을 한 것으로 발우 5합과 수저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이다. 값 25만원.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아침에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부적을 주더군요. 제 사업이 잘되라고 절에 가서 철야기도를 했다고 하면서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불쾌감이 느껴져 부적을 받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고 나니 마음이 착잡해 지더군요. 이전 아닌데,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제 자신을 괴롭히면서요. 그래서 선생님과 이야기나 나눠볼까 하고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 분은 저를 찾아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후,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는 강물에 돌을 던지면 가라앉아 있던 침전물이 뿌옇게 떠오르는 것처럼 아내에 대한 자신의 감정도 그와 같아서 아내로부터 뭔가 자극적인 말을 들으면 내면 속에 가라앉아 있던 기억의 찌꺼기들이 떠올라 괴롭다고 했습니다.



놓을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아이들이 마침 없어서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른 코트 속에 갈수록 가지고 온 쌀 봉투를 아내 앞에 내 놓았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이 내려놓은 쌀 봉투를 나귀 채듯 받아 가지고 뒷모습으로 확 밀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봉투는 찢어지고, 찢어진 봉투에서 쏟아진 쌀은 마치 모이를 뿌려 놓은 것처럼 방바닥에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분은 한 달에 수 천 만원의 고수익을 올리는 유명학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친구들 뿐 아니라 친인척들까지 만나는 것을 기피했지만 지금은 그들 모두가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서 자녀들 진학 상담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아내 역시 그런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늘

같은 남편으로 떠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들판이 제 모습을 찾은 것처럼 그 분 주위에도 제 모습을 찾은 것이지요.

“아내가 남편 하는 일이 잘되기를 바라며 부적을 챙겨주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의 효험은

“부인의 따뜻한 말 원하면 먼저 하세요”

서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고전을 하다가 결국 학원 문을 닫고 말았는데, 학원 문을 닫고 나니 남은 건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과 주위 사람들의 냉대였다고 했습니다.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을 몇 년 간 반복하다 보니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고, 그런 한계점까지 이르고 나니 가까운 친 인척들한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주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자 살던 집도 채권 은행에 넘어가게 되어 그 분은 가족을 데리고 달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 아들과 딸을 데리고 달동네로 이사를 간 날 밤, 그 분은 생을 마감하고 싶은 유혹에 밤새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하룻밤을 꼬박 밝힌 그 분은 다음날 아침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재기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집을 나서고 보니 갈 데도, 만날 사람도, 할 일도 없어서 그 분은 그냥 하루 종일 앞만 보며 걸다가 어두워 진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자 생활도 말이 아니어서 그 분은 어느 추운 겨울 밤, 쌀 한 되밖에 담긴 종이봉투를 코트 속에 갈수록 가지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되박 쌀을 내

별개의 것으로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껏 평범한 그 일을 무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괴로운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재기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아내가 부적을 건네주면서, '여보 전 당신이 꼭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어요.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효험이 있다니 지내 보세요.' 하고 부적을 건네주었다면 저는 그 부적이 효험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며 몸을 지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란 어렵고 힘들 때 믿고 기다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분이 괴로운 것은 바로 그런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거두어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받고 난 저는 한참동안 생각해 잠겨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부인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 듣기를 바라셨듯이, 부인도 지금 선생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말 듣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남편에게 힘이 돼 주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부인을 진심에서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선생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기억의 찌꺼기도 자연히 거두어 질 것 같군요.”

化緣 (02)704-3577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 원력으로 다시 살아나다’ 이왕근(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한 남자가 이른 새벽에 법당에 몰래 들어가 불전함에서 돈을 빼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다가 마당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 사람은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 땅에 떼굴떼굴 구르는 광경이 벌어졌단다.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부처님께 용서를 빌라고 참회를 시킨 후에 땅에 붙었던 몸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정법의 도량에서 나쁜 행동을 하다가 큰 벌을 받은 것이라고들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구인사 이야기를 장시간 하시고는 절에서 배운 기도법을 가르쳐 주었다. 앓은 채로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축원을 드리고서 눈을 감고 관음기도를 올리는 방법이었다. 가족들은 난생 처음 해 보는 기도였지만 마음을 모으고 설레임으로 그대로 따라 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열에 앉히고 염불을 외우게 했다. 지금 그것을 되짚어보면 <천수경>을 외우게 한 것 같다.

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도 생각난다. 아버지께서 그날 따라 밖으로 나들이를 하고 싶으셨나 보다. 집안 일꾼 한사람과 나를 데리고 택시 한 대를 세워 태우게 한 다음 하루종일 돌아다녔다. 운전기사에게는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하고 양산 통도사까지 갔다. 나로서는 처음 부처님도량에 가 본 셈이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집에 스님이 탁발을 오시면 꼭 쌀을 시주하고, 마루위로 모셔 대화를 나누며 편하게 쉬다가 가시게 했다. 또 집에 거지가 오면 옛날에는 거지가 참 많았다 불쌍히 생각해 항상 동냥을 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본인도 의식치 못하지만 불심이 바탕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후 아버지는 구인사에 한 두 차례 더 다녀오게 되었으며 건강도 점점 좋아져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찾아간 병원마다 의사가 고개를 흔들었고, 유명한 의학박사인 작은 아버지조차 고치지 못하는 병이니 그냥 편안히 쉬다가 돌아가시옵시다 라는 말을 남기는 등 온통 절망과 고통의 끝에서 부처님 가피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야말로 날아갈 듯 했다. 이렇게 아버지가 완쾌되자 작은 아버지를 비롯 온 친척, 친지들이 놀라움을 표시했고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부처님과의 인연이 맺어진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5-6세 때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일요일 저녁엔 되면 한번도 빠지지않아 막내인 나를 아버

아무튼 아버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리라며 철저한 부처님 제자가 됐다. 천태종 울산 지역 법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월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했으며 불교포교에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다. 집에서든 항상 부처님 경전을 읽었으며, 불법 공부에 게으르지 않았다.

또 하나, 누나 한분이 어릴때부터 만성축농증에 걸려 병원에 치료를 받으려 다녔지만 다시 재발하곤 했다. 축농증이 너무 오래되고 심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수술비 덜 형편도 아니었

지만 수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밤새 고민을 하신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방안에 촛불을 밝힌 다음 천태종 성전(聖典)을 올려놓고 대조사님의 영정이 보이도록 펼쳐놓고는 합장정례하고 축원을 올렸다. 쌀을 위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을 드렸다. 그리고 절에서 가져온 피마자 기름을 한술갈 누나에게 먹였다. 쌀을 갖게 하려는 간절함이 통했는지 누나의 축농증이 많이 좋아졌다.

이러한 가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믿음은 한층 견고해져 갔다. 우리 가족은 조석으로 부처님께 축원드리고 관음정진을 했다. 법회가 있을 때는 만사를 제치고 참석했으며 일요일 법회때는 막내인 어린 나까지 동참했다.

아버지의 불심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많은 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을 정도였다. 천태종 울산신도회 간부 임명도 받았다.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포교 활동

을 하여, 5년간 간부활동을 마치고는 공로를 인정받아 천태종 2대 종정스님으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 뒤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다가 77세로 작고하셨다.

이러한 열매담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소소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까웠던 아버지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부처님가피로 소생, 26년동안 부처님일을 하시다 돌아가신 일은 내 삶에



본인도 의식치 못한 불심 마음속 존재

오로지 부처님 뒤 따르겠다...77세로 작고

을 하여, 5년간 간부활동을 마치고는 공로를 인정받아 천태종 2대 종정스님으로부터 표창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부처님 뒤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다가 77세로 작고하셨다.

이러한 열매담은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의 소소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까웠던 아버지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부처님가피로 소생, 26년동안 부처님일을 하시다 돌아가신 일은 내 삶에